사진기자의 딴 짓

난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뭔데?"

저 위에 무슨 일이 생긴걸까요. 학생들이 고개가 떨어지라고 위를 쳐다보고 있네요.

뭘 달라는 것인지, 저마다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있는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가까이 갔더니 답답한 듯 한숨 섞인 탄식 소리도 들리고, 환호성도 들립니다.

큰 불이라도 난 것일까요, 선물이라도 던져주는 것일까요.

저절로 함께 위를 쳐다보게 되더군요.

확인결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공원 인공 암벽에서 열린 '제 19회 광주시 전국 등반 경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동료선수의 암벽등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사도가 90도 이상인 암벽, 한참 쳐다보고 있더군요.

경기전 어떻게 올라갈 지, 얼마나 올라가 어디에서 숨 고르기를 해야 하는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늠름하게 암벽타기를 완수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정신,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심신이 지친 우리 주변의 학생들도 이들처럼 용기와 희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스승 된 자의 기쁨

박 재 란

〈해남서초등학교 교사〉

그 당시 4학년인 진아는 검게 그을린 피부에 볼이 통통하고 눈빛이 강렬하여 유난히도 고집이 센 아이처럼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인 내가 하는 말끝마다 토를 달아 신경을 거슬렀다. 수줍게 건넨 초년병 선생님의 인사부터 그 아이는 무색을 주기 시작했다.

" 선생님 공부는 언제 해요?"

그 아이는 반항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난 대학에서 국어를 전공한 탓에 내가 맡은 아이들만큼은 문장력도 키워주고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매일 일기를 쓰게 하였다. 처음에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그것만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길게 쓰게 하였다. 그런데 진아는 매일의 일기가 4-5줄로 끝나는 것이었다. 참다못해 진아를 불러 이유를 물었더니 "일기는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만 쓰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일기라는 것은 너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당연하다만 난 너희들의 글 솜씨가 자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일기를 길게 쓰게 하는 것이란다."

"그래도 전 별로 쓸 말이 없어요."

"진아야, 네가 쓰기 싫다는 생각부터 버리면 좋겠구나. 오늘부터 남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일기 쓰는 훈련을 해보자꾸나."

그 날부터 진아와 나의 글쓰기 위한 대화는 시작되었다. 우선 진아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을 한 가지만 고르게 하고 그것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답한 것을 그대로 글로 적게 하였다. 이제 진아의 일기가 길어졌다. 난 진아의 일기 아래 빨간 볼펜으로 늘어가는 글 솜씨를 보니 기쁘다는 내용의 코멘트를 달아 주었다. 코멘트를 달아주니 아이들은 그것을 읽고 싶어서 빨리 일기장을 돌려 받고 싶어 할 정도였다. 어느덧 일기장은 선생님과 우리 반 아이들의 대화의 창이 되어갔다. 엄마 아빠와 헤어져 살던 진아는 일기를 통해 그리움과 텅 빈 마음을 달래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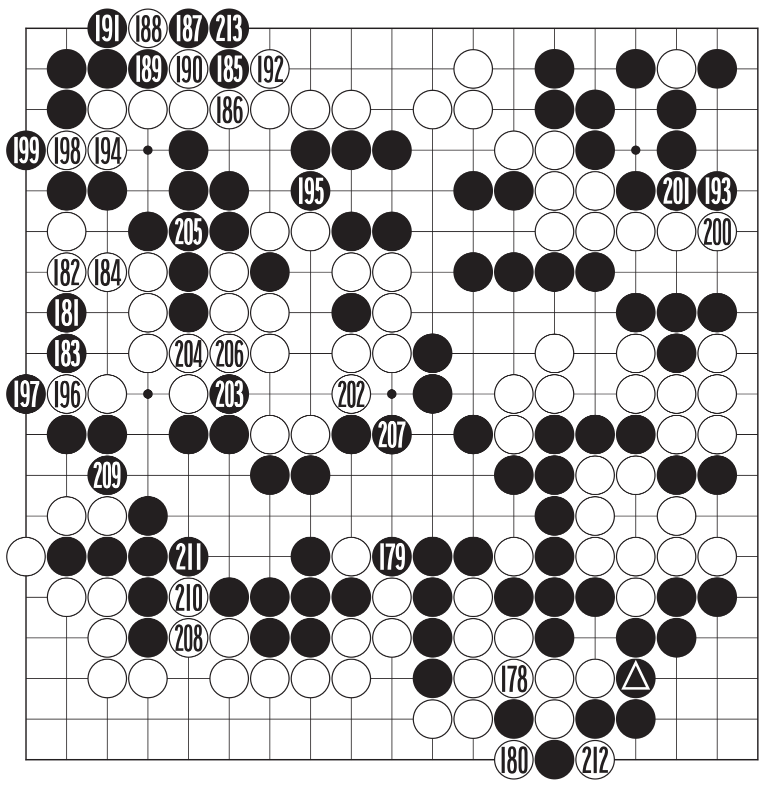
난 진아에게 더 큰 동기를 심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대흥사 주최 서산대사 글짓기대회 참가를 제의했다. 진아는 처음으로 글짓기 대회라는 것을 참가한다는 설렘에 매일 열심이었다. 또 모범적인 글들을 주고 따라 써보기, 고쳐 써보기 등 최선을 다해 준비를 시킨 결과 은상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각종 대회가 있을 때마다 진아를 참가시키고 훈련시킨 결과 5, 6학년 상급생들보다도 더 훌륭한 결과를 속속히 따오는 것이었다.

그 뒤로 영산강·섬진강 사랑 글짓기 대회나 광주은행 저축 글짓기 대상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혁혁한 성과를 올려 진아의 집은 온통 글짓기 대회 상장과 부상으로 도배가 될 정도였다.

작년 초 진아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는 등 놀라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진아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었을까?그것은 분명 내가 사범대학에서 국어를 전공했고 진아에게 문학에 대한 소질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은 혼자서 잘도 걸어가는 진아를 보면서 교직에서만 맡 볼 수 있는 맹자의 군자삼락 중 하나의 기쁨을 맡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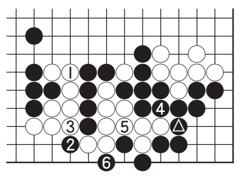
진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지 또 성인이 되어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뛰어난 제자를 둔 스승의 보람을 처음으로 느끼게 제자임에는 틀림없다. 감히 진아가 유명한 작가가 되어 다시 날 찾아오는 날을 기대해 본다.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청룡부 결승전

힘겨운 역전 11보(178~213)

白 온소진 3단 黑 이세돌 9단



〈참고도〉

전보에서 벌어진 승부패가 흑의 승리로 돌아가서는 그야말로 눈터지는 계가바둑이다. 두 대국자가 숨어있는 반집을 찾기 위해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순간인데 이세돌 9단이 179에 끊지않고 엉뚱하게 흑 ▲로 역끝내기를 해온 장면이다.

이때 온소진 3단은 고분고분 178로 잇고 말았는데 만약 이 수로 '참고도'의 1로 이어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흑은 2 이하 6까지 패를 내는 수단이 있다. 이 패는 워낙 천지대패라 흑이 무리. 백이 178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백 180은 좌변 181의 곳과 맛보기의 곳. 얼핏보면 좌변이 커 보이기도 하지만 선·후수 관계가 얽혀있어 단순비교가 매우 어려운 곳이다. 이세돌 9단은 빈틈없이 선구 끝내기를 해치운 다음 마지막 남은 큰 곳인 213에 이어 미세하나마 우세를 확립했다. 이것으로 반집승은 부동이 되었다. 참으로 힘겨운 역전의 순간이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를 보기 바란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김수진 2단, 권갑룡 7단 제압

김수진 2단이 지난달 29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최강전 7국에서 권갑룡 7단을 누르고 여자팀에 다섯번째 승리를 안겼다. 이 승리로 여자팀은 10명, 시니어 팀은 7명의 선수가 남았다.

백을 잡은 권갑룡 7단은 초반 흑의 무리수를 응징하며 국면을 장악했으나, 김수진 2단에게 역전을 허용한 뒤 342수 끝에 흑 2집 반으로 고배를 마셨다.

김수진 2단은 강타자 김일환 9단과 대국한다. 이 대회의 제한시간은 10분 30초 초읽기 3회이다. 우승상금은 5천5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62.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회장의 주택(대지면적 649평·건물 연면적 1천40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평가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공시가격은 91억4천만원으로, 작년보다 6억2천만원이 오른 것이며 실제 가격은 1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① 이건희 회장 ② 정몽구 회장
③ 박삼구 회장 ④ 김승연 회장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일(음 3월 15일 乙未)

子 36년생 주변 상황변화에 주의하면 돈이 생긴다. 48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60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와 즐거우리라. 72년생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84년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부단히 살펴보고 행하라. 행운의 숫자 : 10, 45

丑 37년생 간절한 소망은 꼭 이루어지니 기대해도 좋다. 49년생 상대를 힘들게 하면 자신도 힘들다. 61년생 자녀와 많은 대화를 갖고 앞날을 이야기하라. 73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85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1, 43

寅 38년생 손윗사람의 금전거래는 불량거래가 될 수도 있다. 50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길일이 된다. 62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74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32, 42

卯 39년생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리니 성의껏 협조하라. 51년생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점검하라. 63년생 분주한 하루로다. 75년생 舊事가 시비로 나타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36

辰 40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52년생 먼저 도움을 주면 보답은 그 이상이리라. 64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76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행동은 재빠르게 하라. 행운의 숫자 : 19, 28

巳 41년생 오전은 불편하나 오후는 평안하리라. 5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으니 재물이 들어온다. 65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과감하게 진행하며 나가라. 77년생 흐리던 날씨가 개이고 쨍하니 해가 뜨리라. 행운의 숫자 : 08, 37

午 42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사가 평안하리라. 54년생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손해가 줄어든다. 66년생 외적인 미려함보다는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78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다, 결과는 속상하다. 행운의 숫자 : 01, 38

未 43년생 추진하는 일을 한 번 더 점검하라. 55년생 부부간에 외출하고 다정한 시간을 내라. 67년생 자녀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라. 79년생 형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 해보라. 행운의 숫자 : 0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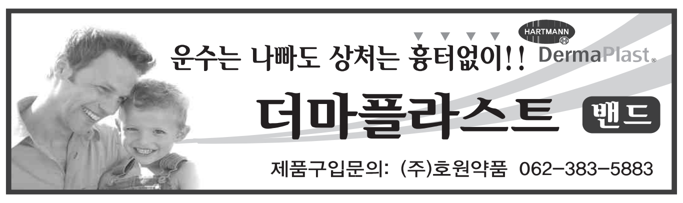
申 44년생 음주운전은 절대 금하라. 56년생 친한 사람의 재물을 건드리지 마라. 큰 것을 잃을 것이다. 68년생 춤추고 노래는 하나 마음은 불편하다. 80년생 자기의 위치는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 12

酉 45년생 꺼진 불도 다시보자 화재를 주의를 하라. 57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주어라. 69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 심성을 안정하라. 81년생 갑자기 속 터지는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31, 35

戌 46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58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하리라. 70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82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만사형통하리라. 행운의 숫자 : 34, 44

亥 47년생 소중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단속을 잘해야 한다. 59년생 남과 말다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71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 83년생 저녁외출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 4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894>

She's not myself today

그녀는 오늘 편치 않아요

A:Jin-sil was upset when I saw her.
B:Don't worry. **She's not herself today.**
A:What's the matter?
B:I don't know. Maybe….

A:내가 진실 씨를 봤을 때, 화가나 있던데.
B:걱정 마세요. **오늘 그녀는 편치 않아서 그래요.**
A:무슨 일이 있나요?
B:모르겠어요. 아마도….

She's not herself today.
= She wo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 응용 표현〉 저는 오늘 몸이 가뿐해요.
= I'm on the top of the world.
I'm not myself today. -잘 생각하질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맥이 풀려 있음을 나타낸다.
I'm under the weather. - 신체적으로 편치 않다는 뜻임.
= I don't feel well.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94>

旬(しゅん)の物が一番美味しいですよ

제철에 먹는 것이 제일 맛있어요

A:いちごは今が一番(いちばん)おいしい季節(きせつ)ですね。
B:ええ、今は一年中何でも食べられますけどね。
A:そうは言っても、**旬(しゅん)の物が一番美味しいですよ。**
B:それに、體(からだ)にもいいって言いますし。

A:딸기는 지금이 제일 맛있는 계절이군요.
B:에에. 지금은 1년 내내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요.
A:그렇다고는 하지만, **제철에 먹는 것이 제일 맛있어요.**
B:게다가 좋다고 말합니다.

いちご : 딸기
食(た)べられる : 먹을수 있다
そうは言(い)っても : 그렇게 말하지만
それに : 게다가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85>

早睡早起， 锻炼身体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몸이 단련 되구나

A:现在几点了?
Xiànzài jǐ diǎn le?
씨엔 짜이 지 디엔 러?
B:六点一刻。
Liù diǎn yí kè。
리어우 디옌 이 커.
A:我该起床练习瑜珈了。
Wǒ gāi qǐ chuáng liànxí yújiā le。
워 까이 치 추앙 리엔시 위찌아 러.
B:**早睡早起，锻炼身体。**好!
Zǎo shuì zǎo qǐ, duànliàn shēntǐ。hǎo!
짜오 수에이 짜오 치, 뚜안 리엔 션티. 하오!

A: 지금 몇 시야?
B: 6시 15분이야.
A: 나 일어나서 요가 연습해야 돼.
B: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몸도 단련하고.** 좋다!

早睡早起	[zǎoshuìzǎoq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锻炼	[duànliàn]	단련하다
瑜珈	[yújiā]	요가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11>

桑田碧海 (상전벽해)

뽕나무 상, 밭 전, 푸를 벽, 바다 해

상전벽해(桑田碧海)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이다. 세상(世上)이 몰라 볼 만큼 바뀐 것을 비유한다. 또 한편으로는 밭이 바다가 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이 말은 '신선전(神仙傳)'에 보인다. 마고(麻姑)라는 여신선이 왕방평(王方平)에게 말하길, "제가 신선님을 모시고 나서 어느 새 뽕밭이 세 번이나 푸른 바다로 변하였지요(桑田碧海). 이번에 봉래산(逢萊山)에 갔더니 바다가 다시 얕아져 이전의 반 정도로 줄었어요."라고 하였다. 또 '상전벽해'는 당나라 시인 유정지(劉廷芝)가 인생의 무상함을 묘사한 '흰머리를 슬퍼하는 노인을 대신하여(代悲白頭翁)'라는 유명한 시에도 보인다.

-전략- 올해 핀 꽃이 떨어지니 얼굴빛이 변하고
(今年花落顔色改)
내년에 꽃이 피면 다시 누구와 볼 수 있으려는가
(明年花開復誰在)
소나무 잣나무 베어져 땔감으로 쓰이는 걸 보았고
뽕밭이 변하여 바다 된다는 말도 들었네
(實聞桑田變成海) -후략-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